



‘미세섬유’ 카드 다시 꺼내 든 제주지검

어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검찰 “미세섬유 재감정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

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또 다시 ‘미세섬유’ 카드를 꺼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

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1심에서 제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박씨가 운행하던 택

시 안에서 발견된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무스탕 털에 대한 재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미세섬유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미세섬유 증거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11일 1심 재판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미세섬유는 대량으로 생산·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견된 섬유가 박씨가 입었던 옷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박씨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무스탕 털과 유사한 동물털 역시 서로 접촉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도 “(화질이 낮아) 영상 속에 찍힌 차량이 박씨의 택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치매, 즐겁게 극복해요” 25일 구좌체육관에서 어르신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소년범 5년간 4859명… 강력범 205명

범죄유형 절도 가장 많고 폭력·특별법범 뒤이어

제주서 지난 5년간 4859명의 소년범(만 14~18세·형법상 범죄소년)이 검거되고, 소년범의 강력범죄도 매년 40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범죄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828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는 1010명, 2015년 1113명, 2016년 896명, 2017

년 1012명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지난 5년간 절도가 18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169명, 특별법범(도로교통법·주민등록법·정보통신방법·저작권법 위반 등) 999명 순이다.

또 이 기간 강도·강간추행·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범죄소년 205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강간추행으로만 24명이 검거됐으며, 2014년 61명(강도 17·강간추행 38·방화 6), 2015년 38명(강도 9·강간추행 29), 2016년 41명(강도 2·강간추행 39),

2017년 41명(강도18·강간추행 23)에 달했다. 매달 평균 3.4건, 매년 41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했으나, 살인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검거된 소년범은 총 37만6482명으로 하루 평균 206명이 검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한 경우 형법범이 전체 소년범 중 79.3%인 29만8564명을 기록해 압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그 중 절도와 폭력이 각각 29.7%(11만1887명)와 27.4%(10만3385명)를 기록하며 10건 중 6건 이상을 차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렌터카 노동자 처우 개선 적극 나설 것”

제주도렌터카노동조합

어제 출범 기자회견 가져

제주렌터카노동조합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노조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지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제대로 된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며 “상습적인 임금 체불, 최저수준의 저임금 구조,

1일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등 197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요구조건으로 ▷생활임금 보장 ▷1일 8시간 통상근무 보장 ▷비정규직 노동 중단 ▷휴게 공간 보장 ▷산재처리 시향 등을 제시하고 “우리는 전태일 열사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정신을 계승하며 제주도렌터카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부적합 가축분뇨액비 살포 재활용업체 적발

제주시, 업체 5곳 고발조치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축분뇨 액비(액체 비료)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 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측정했다.

점검 결과 부속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 기준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

발 조치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다. 화학 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지만,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위반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액비화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현광식 전 제주도비서실장 유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원 25일 상고 기각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하고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광식(57) 전 제주도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모(57)씨를 통해 민간인 조모(60)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돈

을 건넨 이유가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현 전 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원일 뿐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이 2006년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경 제 5 회 축 임업인 한마당 축제

초/대/합/니/다

제주지역 임산물 생산에 노력하는 임업인의 단합과 산림조합 가족들의 축제인, 제5회 임업인 한마당축제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19. 9. 29. (일) 09:00 (개회식 11:00)
장 소 제주고등학교 운동장(구제주농고)
참가대상 임업인, 산림조합원

문의 : 총무이사 이정숙(010-3693-3133), 사무처장 임희규(010-5672-1739)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임업인연합회,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임업인연합회 회장 김 명 만

제17회 광양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

2019년 광양인 한마음축제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동문 여러분들을 모시고 광양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 모두의 친선과 화합의 장인만큼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추억과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9월 29일(일) 10시
개회식 : 10:00, 폐회식 : 16:00
■ 장 소 : 모교운동장(우천시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모교동문 및 가족
■ 주최·주관 : 광양초등학교총동문회
■ 후 원 : 광양초등학교
■ 연락처 및 임원
- 총동문회장 이기창(22회) 010-3691-7738
- 수석부회장 김명만(23회) 010-3691-4224
- 총무부회장 김봉린(22회) 010-2695-6104
- 체육부회장 현광윤(23회) 010-8663-7330

※ 일정 및 시간은 현장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광양초등학교총동문회
회 장 이 기 창

제6회 해안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축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6회 해안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오니 동문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9년 9월 29일(일요일)
식전행사 10시(개회식 11시)
■ 장 소 : 해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 최 : 해안초등학교총동문회
■ 연락처 : 회 장 하경수 010-3623-0076
부회장 김종화 010-3694-5019
총 무 고영남 010-9921-1939

해안초등학교총동문회
회 장 하 경 수 拜上